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한국, 미국, 독일

육아정책 비교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보육 환경 변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 교육·보육 환경 변화



장기 휴원
/휴교로 인한
아동 위험 증가



온라인 교육
기술 자원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 확대



변화된 교육·보육
환경에 따른
교사 부담 증가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운영 어려움 증가



교육과정 운영
어려움 증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국제 비교

육아정책연구소는 한국을 비롯한 각 대륙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 독일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을 3가지 영역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영역



기관 운영
정책



교사 연수 및
영유아 학습 지원



기관 대상
비용 지원

3개 국가별 코로나19 방역 정책 비교

한국



중앙 정부 중심의 단일화된 방역 정책 수립

미국



주별 별도 정책에 시에서 세부지침을 추가할 수 있는 체계
(지역별 방역 정책 차이가 가장 큼)

독일



연방 정부의 공통 방역지침을 토대로 주별로 세부 지침
수립하도록 조율

* 출처: 조숙인, 김나영, 김재희, 김영민(2021).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국제비교, p. 4.

* 미국, 독일은 연방국 특성을 보완하고자 대표 주 4곳을 선정하여 주별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3개국의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운영 정책 : 공통점

3개국의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운영 정책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성을 보였습니다.



- 아동, 가족, 교육 관련 부처에서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운영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형태로 안내 (예: 가이드라인 배포,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공문 발송 등)
- 긴급보육 운영(국가별, 지역별로 대상은 상이)
- 영유아 교육·보육 교직원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구분

3개국의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운영 정책 : 차이점

교직원의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 관련 지침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

미국

독일



**교직원
마스크
착용**

교직원, 2세 이상
영유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착용 의무화. 대체로 마스크 착용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강조. 실외는 규제 없는 경우가 다수



**백신
접종**

-

일부 지역에서 백신 접종 교직원과
백신 미접종 교직원 지침을 구분하여 운영

3개국 기관 운영 정책 중 주목할 점은?

독일에서는 사탕 먹듯이 면봉을 입에 넣어
검사하는 방식인 **롤리테스트를 시행중**입니다.
아이들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고통 없이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 롤리 테스트(Lolli-test): 입에 면봉을 넣어서 고통 없이 자가 채취가 가능한 검사방식

* 출처: 1) 조숙인, 김나영, 김재희, 김영민(2021).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국제비교, p. 282.

2) 롤리테스트 홈페이지 (<https://www.synlab.ch/en/covid-19/lolli-pcr-test>)

3개국의 코로나19 대응 교사 연수 및 영유아 학습 지원

3개국(한국, 미국, 독일)의 교사 연수 및 영유아 학습 지원은
전반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 교사연수



- 수업환경 변화(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원격수업 자료, 가이드라인 배포가 일반적
- 코로나19로 교직원 심리방역, 스트레스 관리, 힐링 등의 신규 연수 개설

• 영유아 학습지원



- 관련 지원(학습자료, 놀이꾸러미 제공, 온라인 자료 공유, 가정 활동 제안 등)과 활용 가능한 자료가 제한적
-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보다는 기관-가정, 교사-부모 연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3개국의 코로나19 대응 기관 대상 비용 지원



3개국의 기관 대상 비용 지원 정책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

-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비 지급 지속**
- 운영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 대상 재정 지원**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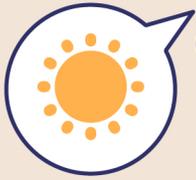
- 4개 주 모두에서 적극적 대응.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ACT 내 Geer fund**를 활용
- 주에서 가용한 지원금을 기관 **안정화, 가정보육비 면제, 아동급식 지원** 등에서 사용



독일

- “좋은 어린이집/유치원법”으로 **코로나19 이전에 확보된 예산을 기관 운영 지원에 활용**
- 4개 주 모두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 지원**

긍정 평가된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3개국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 어린이집 무상보육, 추가 재정 지원은 한시적
- 세부 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 지원
- 비대면 교사 연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미국

- 적극적 재정 지원, 교직원 보호
-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제한된 지원 제공



독일

- 기관 폐쇄 조치
- 가정 중심 보육 강조하여 가정에 재정 지원
-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에 제한된 지원 제공

부정 평가된 코로나19 대응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3개국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코로나19 대응 육아지원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 높은 긴급보육 등원율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 인력 부족
- 특별활동 제공 어려움



미국

- 교사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거부
- 백신 접종, 미접종 교사 간 지침 차별 적용
- 관련 부처의 지원 서비스 처리 지연, 비효율성



독일

- 교사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거부
- 백신 접종, 미접종 교사 간 지침 차별 적용
- 관련 부처의 지원 서비스 처리 지연, 비효율성
- 기관 유형에 따른 운영 보조금 차이

전문가들이 제안한 코로나19 대응 육아지원정책 개선 방안

3개국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보육
인력 확충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단계별 명확한 지침 마련



비대면·대면 교사연수 질 향상과
교육의 디지털화환경구축



전반적인 기관
재정 지원 확대



기관 유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공평한 재정 지원 제공



영유아대상 가정지원
서비스의 확장 및 시스템 확충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기본 방향



방역

-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 속 기관 내 확진자 발생 관련 대처방안 재정비
- 교직원, 부모, 아동 코로나19 정기적 선제검사를 통한 관리
- 기관 내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



교육·보육

- 대면교육: 실외놀이(바깥 놀이) 강화
- 원격교육: 확진자 증가 시 쌍방향 소통 가능 매체 이용, 긴급돌봄 커리큘럼 제공 (가정보육, 기관보육 아동 간 격차 최소화)
- 영유아 사회·정서 발달(심리방역) 지원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세부전략

영유아 교육·보육 운영

교실 내 밀집도 조정 및
긴급돌봄 이용 기준 수정,
코로나19 검사방식 다양화 등
(예: 영유아 대상 롤리 테스트 도입)

교사 연수 지원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활용 지원,
교사 연수 프로그램 질 개선,
연수 내용, 형태 다양화 등

영유아 학습 지원

코로나19 영유아 학습 지원의
모범 사례 발굴,
영유아 가정 대상
디지털 도구 지원 등

기관 대상 비용 지원

지원금 사용 용도 결정권을
기관에 부여,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보조금이
고르게 분배 되도록 지원